



미활용특허도 신탁은 절대 불가

출연연 특허 중 26%는 미활용 특허
전문기관 신탁은 5% 수준

□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출연연 보유 특허 현황'에 따르면,

- 2012년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3만 602개의 특허 중 7,904개(25.8%)이 미활용 특허이며 그 중 특허신탁 기관에 접수한 특허 수는 412개로 고작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1. 최근 3년간 출연연 미활용 특허 및 미활용특허 신탁 현황 > 참조

<표1. 최근 3년간 출연연 미활용 특허 및 미활용 특허 신탁 현황>

(단위 : 개)

연도	보유 특허	미활용 특허	미활용 특허 비중(%)	미활용 특허 전문기관 신탁	신탁 비중 (%)
2010	26,125	6,301	24.1%	275	4.4%
2011	28,560	6,052	21.2%	497	8.2%
2012	30,602	7,904	25.8%	412	5.2%

* 미활용 특허 : 활용 추진중인 특허 불포함

* 특허신탁기관 :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 2012년 기준 출연연의 기관별 미활용 특허 및 신탁 비중을 보면,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1,870개 특허 중 미활용 특허가 964개(51.6%)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2. 출연(연) 기관별 미활용 특허 및 신탁 비중> 참조

- 반 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1,237개 특허 중 57개(4.6%)의 특허만이 미활용특허일 뿐 아니라 신탁 비중도 57개 중 10개(17.5%)로 출연연 중 상위권에 속했음.

<표2. 출연(연) 기관별 미활용 특허 및 신탁 비중>

(단위 : %)

기관명	미활용 특허 비중	신탁 비중	기관명	미활용 특허 비중	신탁 비중
한국원자력연구원	51.6	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4	0.0
안전성평가연구소	50.0	18.2	재료연구소	18.7	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6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1	0.0
한국천문연구원	34.6	33.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3	3.2
한국한의학연구원	30.9	1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3	0.0
국가핵융합연구소	27.9	0.0	한국기계연구원	13.5	2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7.5	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7	0.0
한국식품연구원	26.7	2.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0	8.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4	8.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7	7.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5.1	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	0.0
한국전기연구원	23.9	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6	17.5
한국화학연구원	22.4	1.9	세계김치연구소	-	-

* 2012년 말 기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2012년 3월 개소) 제외

□ 민병주 의원은 “향후 대한민국 10년을 책임질 미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출연연구기관의 소명임을 감안하면 특허의 활용률을 당장 논하기는 어렵지만, 전문 기관에 미활용 특허를 신탁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대상들의 기술 접근성과 특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며,

- 또한 “융·복합이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시대의 큰 화두인 만큼 출연연의 기술들이 기관 내의 화석처럼 보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함.